

2020년 추석 가정예배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 121:8]

예배로 부름 인 도 자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 도 신 경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찬송 589장 다 같 이

1.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 하도다
2.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 있는 일꾼들을 주어 보내 주소서
3.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 하게 하소서
4. 거둬들이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 참여 하겠네 후렴)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 합시다. 아멘.

기 도 가 족 대 표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해보다도 장마와 태풍도 심했고, 더욱이 전무후무한 전염병으로 온 나라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래도 때를 따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각자 어디에 있던지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시어 저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시편 23:1-6 말 은 이

1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 시며 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다 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다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하였습니다. 목자의 보호를 받는 동물은 언제나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양을 돌보는 목자로 지냈기에 양의 습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야수가 달려들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먹을 것을 찾아주고, 건강을 챙겨주고,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지켜주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동물입니다. 우리도 양과 같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자신은 물론 가정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용맹하며 최고의 왕위에 오른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에 있어서 자신은 어디로 가야할지 알지 못하는 양과 같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겠다는 믿음의 결단이요 고백을 합니다. 그리하여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이끌어주시는 대로 겸손히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주십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 듯이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알 뿐만 아니라 양들의 건강 상태는 물론 컨디션까지도 압니다. 매일매일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양들을 돌보고 점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는 것은 목자의 책임이자 자랑이며 자부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주실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 설 만한 물 가로 인도하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죽음의 골짜기를 맞닥뜨리는 것처럼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 골짜기 너머 너른 들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부심이며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느 때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무엇보다도 날마다 감사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1절) 선한 목자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 2절)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 3절) 흠이 많고 악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시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시다
- 4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용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후 교제 (추석 인사 및 덕담 나누기, 가족놀이)

성묘예배

- * **예식사(인도자):** 오늘 우리는 고 ○○○님의 무덤 앞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 * **신앙고백(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 * **찬송(다같이):** 고인이 즐겨 부르던 찬송
- * **성경봉독:** 히브리서 11장 13-16절
- * **권면과 위로:** “고향”

추석 연휴가 되면 민족 대이동이라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습니다. 우리 민족은 고향 지향적인 민족입니다. 한국 사람은 아무리 타향에 오래 살아도 그곳은 어디까지나 타향이지 고향이 될 수 없다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총리까지 지낸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손들에게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실 때가 되거든 반드시 내 유골도 가지고 고향으로 가라고 유언했습니다.

성도에게도 영원한 고향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언제나 위엿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온 가족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 * **찬송(다같이):** 491장
- * **주기도문(다같이)**